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4657

2015년 2월

석사학위논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효 주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Health behavior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2013

2015년 2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효 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지도교수 한 미 아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효 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효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박 종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최 성 우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한 미 아 (인)

2014년 11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표 목 차 ····· iii
도 목차 ····· iv
ABSTRACT ····· v

I. 서론 ····· 1

II. 연구방법 ····· 3
A. 연구대상 ····· 3
B. 조사변수 ····· 6
1. 다문화가정의 정의 ····· 6
2. 일반적 특성 ····· 6
3. 건강행태 ····· 7
C. 분석방법 ····· 9

III. 연구 결과 ····· 10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 10
1. 다문화가정 유형과 부모의 국적 ····· 10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 12
B.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 14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 사용 특성 ····· 1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신체활동, 비만, 식습관 특성 ····· 16
C.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교차비 ···· 18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 사용 교차비 ····· 18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신체활동, 비만, 식습관 교차비 ····· 20

IV. 고찰 ····· 22

V. 요약 및 결론 ····· 27

참고문헌 ····· 28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 차

Table 1. Total participants of 2011-2013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according to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 4
Table 2. Multicultural type and nationality of the parents ····· 11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 13
Table 4.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 15
Table 5.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dietary habits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 17
Table 6. Odds ratios for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by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 19
Table 7. Odds ratios for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dietary habits by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 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도 목 차

Figure 1. A flow chart showing recruitment of the study population ····· 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Health behavior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2013

Kim, Hyo-Ju
Advisor : Prof. Han, Mi Ah M.D., Ph.D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alth behaviors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in korea.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from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2013) dataset, we identified 1,954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then selected general family adolescents as much as multicultural family 2 times. Frequency analysis was used for analysis of multicultural type and nationality of the parents, chi-square test was used to compa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 of the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Condition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for comparison of health behavior between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ies.

Results: Of the 5,862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current smoker in North Korea family adolescents was higher than general family adolescents(adusted odds ratio, aOR=3.59, 95% confidence interval, CI=1.99-6.48) after adjusting for sex, school year, perceived school record, family structure,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perceived economic status, place of residence and survey year. High risk drinking rate wer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ignificantly high in multicultural family compared to general family adolescents (North Korea: aOR=4.21, 95% CI=2.31-7.68, Other: aOR=1.36, 95% CI=1.01-1.82). Odds ratios for done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of vigous intensity (aOR=1.80, 95% CI=1.14-2.84) were significantly high in North Korea family adolescents compared to general family adolescents. Skipping breakfast (aOR=1.75, 95% CI=1.04-2.95) and fast food intake (aOR=2.58, 95% CI=1.54-4.34) were significantly high in North Korea family adolescents compared to general family adolescents.

Conclusions: There were difference in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health behaviors. Further study is needed to investigate health behaviors in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Key words : Health behavi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North Korea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론

다문화사회는 국적, 민족, 인종이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로(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 다문화사회의 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Park, 2011). 근대 이민 국가 중 최초이자 최대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이민이나 국제결혼으로 만들어진 문화를 다문화사회로 정의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인종이 아닌 다양한 민족이나 부족 문화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고 있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 우리나라 역시 여러 민족의 유입을 통해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Park, 2011).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은 인종, 종족, 피부색 등 서로 다른 국적이나 문화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한 사람들이 모여 가정을 이룬 것으로(Chung & Jung, 20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 다문화 대상자와 배우자 및 9~24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언어와 지역적 특성을 지닌 외국인 뿐 아니라, 오랜 세월 분단되어 서로 다른 생활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도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되고 있다(Lim 등, 2009). 하지만 북한은 우리나라와 하나의 민족으로 역사를 공유하고 언어가 같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다문화가정과는 달리 분류되어야 한다(Park, 2013).

우리나라의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조사한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5%, 2012년과 2013년에 2.8%였으며, 2014년 3.1%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014). 이에 다문화가정 청소년 역시 2006년 9,389명, 2011년 38,678명, 2012년 46,954명으로, 2012년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2011년에 비해 21%(8,276명)가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6년에 비하면 5배 늘어난 수치이다. 또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학교 등을 감안할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또한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2,402명, 2011년 2,706명,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으며(Ministry of Unification, 2013), 탈북학생의 수는 2011년 1,681명, 2012년 1,992명, 2013년 2,022명, 2014년 2,18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외국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민, 민족에 따라 건강행태를 비교한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 유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hau 등(2012)의 연구에서는 유럽국가의 이민가정 청소년에 비해 비유럽 국가 이민가정 청소년에서 흡연률이 높았고, 신체활동 실천률은 비유럽 국가의 이민가정 청소년에서 높았다. Singh 등(2013)의 연구에서는 미국 청소년에 비해 이민가정의 히스패닉 청소년에서 비만이 높았으며, Esteban-Gonzalo 등(2013)의 연구에서는 스페인 청소년에 비해 이민가정 청소년에서 권장 식이 실천률이 낮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이 높았고(Jun, 2008), Lee (200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자아정체감이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과 관련이 있었고(Park, 2013), 청소년의 건강행태가 주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등, 2013).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부 지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 부적응이나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가 불가능하고, 최근 한국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북한가정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나누어 다문화가정 현황과 일반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여 일반가정 청소년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2013년 제7-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표모집단은 전국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정의되었으며, 표본추출은 모집단 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단계 과정으로 나눠졌다. 모집단의 층화 단계에서는 지역군과 학교급이 층화변수로 사용되었으며,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개교로 표본크기가 정해졌고, 16개 시·도별로 중·고등학교 각각 5개씩 우선 배분되었다. 층화변수별 모집단 구성비와 표본 구성비가 일치하도록 비례배분법이 적용되었으며, 표본추출은 층화집락추출법으로 1차 추출단위는 학교, 2차 추출단위는 학급이 사용되었다.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1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학교 컴퓨터실에서 무작위로 1인 1대 컴퓨터를 배정하여,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방법으로 수행되었다(Jee & Kim, 2013).

연구대상은 2011년부터 2013년 조사에 참여한 231,331명 중, 건강행태와 다문화가정에 대해 묻는 문항에 결측값이 있는 11,629명을 제외한 219,7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954명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에서 160명(0.1%)은 북한가정 청소년이였으며, 1,794명(0.8%)은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었다. 217,748명(99%)은 일반가정 청소년이었으며, 학년과 거주지역, 조사연도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율이 낮고, 군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분율이 높았다. 또한 조사연도가 최근으로 갈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분율이 증가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라 건강행태, 의료의 접근도 등이 다르고(Kim & Kim, 2014; Shin, 2011)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연도와 거주지역을 매칭변수로 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수의 2배수만큼 일반가정 청소년을 추출하여 일반가정 청소년 1,954명, 다문화가정 청소년 3,908명, 총 5,8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1. Total participants of 2011-2013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according to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Variables	Gene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Total	p-value
Total	217,748(99.0)	1,954(1.0)	219,702(100.0)	
Sex				
Boys	110,165(52.4)	1,010(53.7)	111,175(52.4)	0.348
Girls	107,583(47.6)	944(46.3)	108,527(47.6)	
School year				
Middle 1st	36,419(16.0)	427(20.4)	36,846(16.0)	<.0001
Middle 2nd	36,485(16.3)	447(21.9)	36,932(16.3)	
Middle 3rd	36,732(16.8)	394(20.2)	37,126(16.8)	
High 1st	36,396(17.2)	280(15.2)	36,676(17.2)	
High 2nd	36,077(16.9)	212(11.1)	36,289(16.9)	
High 3rd	35,639(16.9)	194(11.2)	35,833(16.8)	
Place of residence				
Large cities	99,142(44.6)	650(37.0)	99,792(44.5)	<.0001
Small and middle	92,452(49.1)	810(48.4)	93,262(49.1)	
sized cities	26,154(6.3)	494(14.6)	26,648(6.4)	
Towns				
Survey year				
2011	74,172(34.1)	547(29.5)	74,719(34.0)	<.0001
2012	72,833(33.3)	603(31.7)	73,436(33.3)	
2013	70,743(32.6)	804(38.8)	71,547(32.6)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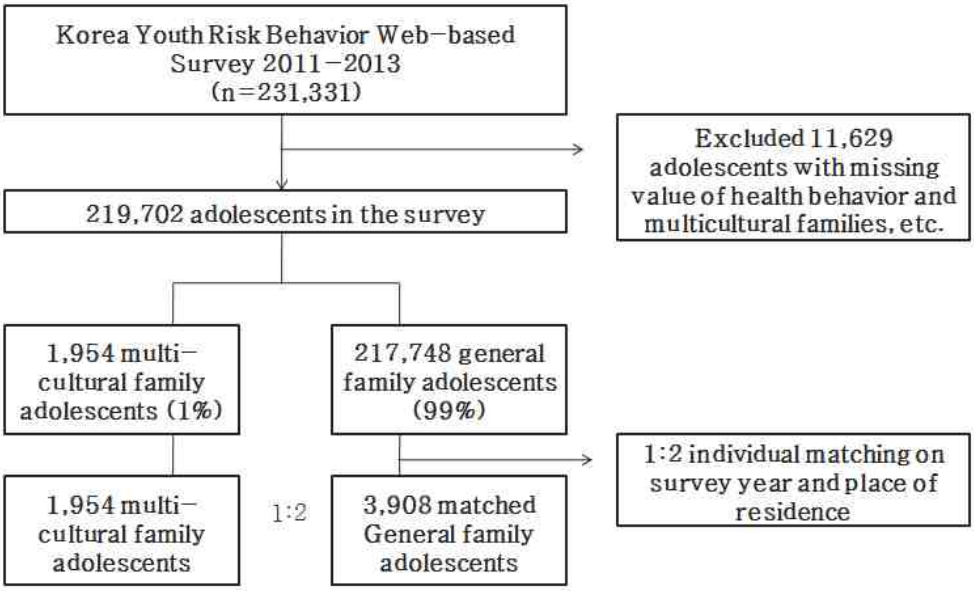

Figure 1. A flow chart showing recruitment of the study populati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조사변수

1. 다문화가정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또는 “어머니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아니다”라고 응답한 학생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Lee 등,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국적은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기타 민족), 북한,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 포함되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에서 아버지 국적 또는 어머니 국적이 “북한”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북한가정 청소년으로 분류하였으며, 나머지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으로 분류하였다.

2.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년, 학업성적, 부모동거여부,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거주지역, 경제상태, 조사연도가 포함되었다. 학업성적은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성적은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상” 또는 “중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상”으로,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중”으로, “중하” 또는 “하”라고 응답한 경우 “하”로 분류하였다. 부모동거여부는 부모와 양부모 상관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로 분류하였으며, 아버지 또는 양아버지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만 함께 살고 있다”로, 어머니 또는 양어머니만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어머니만 함께 살고 있다”로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묻는 문항에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전문대학교 졸업 포함)”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역은 도시규모에 따라 특별시 및 광역시를 “대도시”, 대도시를 제외한 시를 “중소도시”, 대도시 및 중소도시를 제외한 군지역을 “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경제상태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상” 또는 “중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상”으로,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 “중”으로, “중하” 또는 “하”라고 응답한 경우 “하”로 분류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건강행태

a. 흡연, 음주 및 약물 사용 경험

흡연은 평생흡연경험과 현재흡연상태,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여부가 포함되었다. 평생흡연경험은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없다”, “있다”로 분류하였고, 현재흡연상태는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에서 “최근 30일 동안 없다”와 “비해당(평생 흡연 한 적 없음)”일 경우 “현재 흡연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흡연함”으로 분류하였다.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여부는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담배를 피울 때 그 근처에 같이 있은 적이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에서 “최근 7일 동안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아니오”로 분류 하였고, 하루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예”로 분류하였다.

음주는 평생음주경험, 현재음주상태, 위험음주가 포함되었다. 평생음주경험은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없다”, “있다”로 분류하였고, 현재음주상태는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에서 “최근 30일 동안 없다”와 “비해당(평생 음주한 적 없음)”일 경우 “현재 음주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음주함”으로 분류하였다. 위험음주는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실 때 평균량은 얼마입니까?”라는 문항에서 남자의 경우 5잔 이상, 여자는 3잔 이상일 때 위험음주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평생 약물 사용 경험의 경우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정제, 히로뽕,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 가래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 “없다”로, “이전에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지만,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와 “요즘에도 가끔 약물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있다”로 분류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신체활동, 비만 및 식습관

신체활동의 경우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 여부,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여부, 하루 3시간 이상 여가시간에 앉아서 보내는지 여부가 포함되었다. 신체활동 실천여부는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에서 주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예”로, 나머지는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여부의 경우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에서 주 3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예”, 나머지는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여가시간에 하루 3시간 이상 앉아서 보내는지 여부는 “최근 7일 동안, 앉아서 보낸 시간이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에서 주중과 주말에 학습목적 이외에 3시간 이상 앉아서 보낼 경우 “예”, 3시간 미만의 경우 “아니오”로 분류하였다.

비만은 체중(kg)/[신장(m)]^{2}으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구하였고, BMI가 95 백분위수 이상 또는 BMI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정의하였다(Jee & Kim, 2013).

식습관은 최근 일주일 동안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 여부, 최근 일주일 동안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 여부, 최근 일주일 동안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여부가 포함되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 여부의 경우 “최근 7일 동안 아침식사를(우유나 쥬스만 먹은 것은 제외)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문항에서 주 5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아니오”, 나머지는 “예”로 분류하였다.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 여부는 “최근 7일 동안, 식사할 때 채소반찬(김치 제외)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매일 3번 이상”의 경우 “예”, 나머지는 “아니오”로 분류하였고,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여부의 경우 “최근 7일 동안,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라는 문항에서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았다” 또는 “주 1~2번”이라고 응답한 경우 “아니오”로, 나머지는 “예”로 분류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분석방법

대상자의 다문화가정 분율과 부모의 국적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모든 변수는 빈도와 %를 제시하였다.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한 북한가정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특성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성별, 학년, 학업성적, 부모동거여부 등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한 북한가정 청소년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교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을 계산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AS program(ver.9.3)을 사용하였으며,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결과

A. 대상자의 특성 분포

1. 다문화가정 유형과 부모의 국적

다문화가정 유형에서 아버지만 외국 국적인 경우는 12.0%였고, 어머니만 외국 국적인 경우는 74.0%,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는 14.0%였다. 아버지의 국적은 북한이 18.9%로 가장 높았고, 일본(15.6%), 중국(조선족; 14.0%), 중국(한족, 기타 민족; 7.3%) 순으로 높았다.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이 28.9%로 가장 높았고, 중국(조선족; 28.8%), 중국(한족, 기타 민족; 11.6%), 필리핀(8.9%) 순으로 높았다(Table 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2. Multicultural type and nationality of the parents

Variables	N	%
Multicultural type		
Father only	235	12.0
Mother only	1,446	74.0
Both	273	14.0
Father nationality		
North Korea	96	18.9
Japan	79	15.6
Chinese (Korean Chinese)	71	14.0
Chinese (Han Chinese, others)	37	7.3
Vietnam	32	6.3
Uzbekistan	28	5.5
Mongolia	26	5.1
Taiwan	19	3.7
Philippines	16	3.1
Russia	15	3.0
Cambodia	14	2.8
Thailand	2	0.4
Other	73	14.4
Mother nationality		
Japan	496	28.9
Chinese (Korean Chinese)	495	28.8
Chinese (Han Chinese, others)	199	11.6
Philippines	153	8.9
North Korea	102	5.9
Vietnam	80	4.7
Mongolia	33	1.9
Thailand	23	1.3
Russia	22	1.3
Cambodia	22	1.3
Uzbekistan	21	1.2
Taiwan	15	0.9
Other	58	3.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이 50.9%, 여학생이 49.1%였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북한가정 청소년은 남학생 61.3%, 여학생 38.7%,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남학생 50.8%, 여학생 49.2%였다. 학년에서 일반가정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17.3%), 북한가정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22.5%),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23.5%)이 가장 높았다. 학업성적은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에서 모두 하, 상, 중 순으로 높았다. 부모동거여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일반가정 청소년은 83.4%였고, 북한가정 청소년은 53.1%,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76.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일반가정과 북한가정,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각각 8.6%, 21.3%, 10.5%로 높았다.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다른 사람과 사는 경우가 2.6%로 가장 낮은 반면, 북한가정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각각 9.4%, 6.0%로 가장 낮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순이었고, 북한가정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교 졸업 이상 순이었으며,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순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일반가정과 북한가정,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모두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순이었다. 경제상태는 일반가정 청소년의 경우 중, 상, 하 순이었으며, 북한가정 청소년의 경우 하, 상, 중 순으로 높았고,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중, 하, 상, 순이었다(Table 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Variables	Gene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p-value
		North Korea	Other	
Sex				
Boys	1,990(50.9)	98(61.3)	912(50.8)	0.035
Girls	1,918(49.1)	62(38.7)	882(49.2)	
School year				
Middle 1st	675(17.3)	18(11.3)	409(22.8)	<.0001
Middle 2nd	636(16.3)	25(15.6)	422(23.5)	
Middle 3rd	651(16.7)	24(15.0)	370(20.6)	
High 1st	661(16.9)	28(17.5)	252(14.0)	
High 2nd	650(16.6)	29(18.1)	183(10.2)	
High 3rd	635(16.2)	36(22.5)	158(8.8)	
Perceived school record				
High	1,325(33.9)	56(35.0)	509(28.4)	<0.001
Middle	1,070(27.4)	33(20.6)	439(24.5)	
Low	1,513(38.7)	71(44.4)	846(47.2)	
Family structure				
Lives with both parents	3,261(83.4)	85(53.1)	1,374(76.6)	<0.001
Lives with father	208(5.3)	15(9.4)	108(6.0)	
Lives with mother	336(8.6)	34(21.3)	189(10.5)	
Lives with others	103(2.6)	26(16.3)	123(6.9)	
Father's education				
≥College	1,617(50.0)	28(29.2)	381(29.3)	<0.001
High school	1,433(44.3)	37(38.5)	573(44.1)	
≤Middle school	185(5.7)	31(32.3)	345(26.6)	
Mother's education				
≥College	1,269(39.0)	33(27.7)	547(42.5)	<0.001
High school	1,812(55.6)	57(47.9)	575(44.7)	
≤Middle school	177(5.4)	29(24.4)	165(12.8)	
Perceived economic status				
High	1,142(29.2)	52(32.5)	384(21.4)	<0.001
Middle	1,907(48.8)	40(25.0)	791(44.1)	
Low	859(22.0)	68(42.5)	619(34.5)	
Place of residence				
Large cities	1,300(33.3)	61(38.1)	589(32.8)	<0.001
Small and middle sized	1,620(41.5)	89(55.6)	721(40.2)	
cities	988(25.3)	10(6.3)	484(27.0)	
Towns				
Survey year				
2011	1,094(28.0)	44(27.5)	503(28.0)	0.256
2012	1,206(30.9)	38(23.8)	565(31.5)	
2013	1,608(41.1)	78(48.8)	726(40.5)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사용 특성

평생 흡연 경험은 일반가정 청소년 23.8%, 북한가정 청소년 53.1%,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24.8%로 북한가정, 그 외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순으로 높았으며(p<0.001), 현재 흡연률은 일반가정 청소년 11.2%, 북한가정 청소년 35.0%,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13.5%로 북한가정, 그 외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순으로 높았다(p<0.001). 최근 일주일 간접흡연 노출경험은 북한가정(53.1%), 일반가정(36.4%), 그 외 다문화가정(36.2%) 순으로 높았다(p<0.001). 평생 음주 경험은 북한가정(64.4%), 일반가정(47.4%), 그 외 다문화가정(37.9%) 순으로 높았으며(p<0.001), 위험 음주율은 북한가정(29.5%), 그 외 다문화가정(9.2%), 일반가정(7.4%) 순으로 높았다(p<0.001). 또한 평생 약물 사용 경험은 북한가정(20.6%), 그 외 다문화가정(4.6%), 일반가정(0.3%) 순으로 높았다(p<0.001; Table 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4.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Variables	Gene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p-value
		North Korea	Other	
Lifetime smoking experience				
No	2,976(76.2)	75(46.9)	1,349(75.2)	<0.001
Yes	932(23.8)	85(53.1)	445(24.8)	
Current smoker				
No	3,471(88.8)	104(65.0)	1,552(86.5)	<0.001
Yes	437(11.2)	56(35.0)	242(13.5)	
Secondhand smoke exposure recent 7 days				
No	2,485(63.6)	75(46.9)	1,145(63.8)	<0.001
Yes	1,423(36.4)	85(53.1)	649(36.2)	
Lifetime drinking experience				
No	2,056(52.6)	57(35.6)	1,114(62.1)	<0.001
Yes	1,852(47.4)	103(64.4)	680(37.9)	
Current drinker				
No	3,183(81.4)	91(56.9)	1,486(82.8)	0.693
Yes	725(18.6)	69(43.1)	308(17.2)	
High risk drinker				
No	3,567(92.6)	110(70.5)	1,614(90.8)	<0.001
Yes	284(7.4)	46(29.5)	163(9.2)	
Lifetime experience of drug use				
No	3,897(99.7)	127(79.4)	1,711(95.4)	<0.001
Yes	11(0.3)	33(20.6)	83(4.6)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신체활동, 비만, 식습관 특성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은 북한가정(19.4%), 그 외 다문화가정(12.6%), 일반가정(11.9%) 순으로 높았고(p=0.019),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률 또한 북한가정(50.6%), 그 외 다문화가정(37.7%), 일반가정(35.1%) 순으로 높았다(p<0.001).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일반가정 청소년 49.0%, 북한가정 청소년 58.8%,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51.1%로 북한가정, 그 외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순으로 높았으며(p=0.026),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 12.2%, 북한가정 청소년 26.3%,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12.7%로 북한가정, 그 외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순으로 높았다(p<0.001; Table 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5.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dietary habits of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adolescents

Variables	General family	Multicultural family		p-value
		North Korea	Other	
Physical activity ≥5 days/week				
No	3,441(88.1)	129(80.6)	1,568(87.4)	0.019
Yes	467(11.9)	31(19.4)	226(12.6)	
Vigorous physical activity ≥3 days/week				
No	2,536(64.9)	79(49.4)	1,117(62.3)	<0.001
Yes	1,372(35.1)	81(50.6)	677(37.7)	
Sedentary time ≥3hr/day				
No	3,384(86.6)	135(84.4)	1,523(84.9)	0.191
Yes	524(13.4)	25(15.6)	271(15.1)	
Obesity				
No	3,425(90.0)	82(94.3)	1,480(91.6)	0.091
Yes	381(10.0)	5(5.7)	136(8.4)	
Skipping breakfast ≥5 days/week				
No	1,994(51.0)	66(41.3)	878(48.9)	0.026
Yes	1,914(49.0)	94(58.8)	916(51.1)	
Vegetable intake ≥3 times/day				
No	3,237(82.8)	131(81.9)	1,496(83.4)	0.814
Yes	671(17.2)	29(18.1)	298(16.6)	
Fast food intake ≥3 times/week				
No	3,430(87.8)	118(73.8)	1,567(87.3)	<0.001
Yes	478(12.2)	42(26.3)	227(12.7)	

Data are expressed as numbe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C.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교차비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흡연, 음주, 약물사용 교차비

평생 흡연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높았으며(aOR=3.02, 95% CI=1.74-5.24), 현재 흡연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aOR=3.59, 95% CI=1.99-6.48). 간접흡연 노출 경험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aOR=2.84, 95% CI=1.75-4.61),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낮았다(aOR=0.79, 95% CI=0.68-0.93). 평생 음주 경험는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0.76배 낮았고(aOR=0.76, 95% CI=0.64-0.89), 현재 음주자는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aOR=3.06, 95% CI=1.81-5.15). 위험 음주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aOR=4.21, 95% CI=2.31-7.68)과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가정 청소년(aOR=1.36, 95% CI=1.01-1.82)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약물사용 경험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aOR=63.01, 95% CI= 22.09-179.80)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aOR=12.87, 95% CI= 5.20-31.82)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6. Odds ratios for smoking, drinking and drug use by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Variables	aOR*	95% CI
With lifetime smoking experience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3.02	1.74-5.24
Other multicultural family	0.99	0.82-1.21
Current smoker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3.59	1.99-6.48
Other multicultural family	1.23	0.97-1.56
With secondhand smoke exposure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2.84	1.75-4.61
Other multicultural family	0.79	0.68-0.93
With lifetime drinking experience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1.53	0.90-2.58
Other multicultural family	0.76	0.64-0.89
Current drinker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3.06	1.81-5.15
Other multicultural family	1.04	0.85-1.29
High risk drinker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4.21	2.31-7.68
Other multicultural family	1.36	1.01-1.82
With lifetime drug experience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63.01	22.09-179.80
Other multicultural family	12.87	5.20-31.82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school year, perceived school record, family structure,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perceived economic status, place of residence and survey yea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신체활동, 비만, 식습관 교차비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aOR=1.80, 95% CI=1.14-2.84).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고(aOR=1.75, 95% CI=1.04-2.95),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aOR=2.58, 95% CI=1.54-4.34; Table 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able 7. Odds ratios for physical activity, obesity and dietary habits by multicultural and general family

Variables	aOR*	95% CI
Done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of moderate intensity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1.68	0.92-3.05
Other multicultural family	1.05	0.83-1.33
Done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of vigorous intensity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1.80	1.14-2.84
Other multicultural family	1.14	0.97-1.34
Done sedentary behavior ≥3hr/day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1.77	0.87-3.61
Other multicultural family	1.07	0.83-1.37
With obesity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0.17	0.02-1.28
Other multicultural family	0.76	0.57-1.01
Skipping breakfast ≥5 days/week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1.75	1.04-2.95
Other multicultural family	0.89	0.76-1.04
Vegetable intake ≥3 times/day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1.10	0.58-2.08
Other multicultural family	0.97	0.80-1.19
Fast food intake ≥3 times/day		
General family	1	
North Korea family	2.58	1.54-4.34
Other multicultural family	0.94	0.74-1.20

aOR: adjusted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or sex, school year, perceived school record, family structure, father's education, mother's education, perceived economic status, place of residence and survey year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고찰

본 연구는 2011년-2013년 제7-9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형태는 아버지만 외국 국적인 경우가 12.0%, 어머니만 외국 국적인 경우가 74.0%였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외국 국적인 경우는 14.0%로 어머니가 외국 국적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Jun (2008)의 연구에서 아버지만 외국 국적인 경우 13.5%, 어머니만 외국 국적인 경우 81.9%,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 4.7%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2013년의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여자 18,307건, 남자 7,656건으로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 건수가 외국인 남편의 국제결혼 건수보다 2배정도 많아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이는 다문화가정 형태가 어머니의 외국 국적이 많은 이유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국적은 북한, 일본, 중국(조선족) 순으로 높았고,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 중국(조선족), 중국(한족, 기타민족) 순으로 높았다. 교육부에서 조사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국적은 일본, 중국, 중국(한국계) 순으로 높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청소년의 흡연, 음주 등 건강행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및 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Yoon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중 어머니가 외국인이 많은 것은 어머니나 어머니 국가의 건강행태 현황 및 태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 특성에서는 일반가정과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이 비슷한데 반해 북한가정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 61.3%, 여학생 38.7%로 남학생의 분율이 높았다. 부모동거여부에서는 일반가정과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각각 83.4%, 76.6%인데 반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는 53.1%로 절반정도가 편부모 가정이거나 다른 사람들과 사는 가정형태를 보였으며, 부모의 학력 또한 일반가정 청소년에서는 대학교 이상이 아버지 50.0%, 어머니 39.0%인데 반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는 아버지 29.2%, 어머니 27.7%로 북한가정 청소년의 부모 학력이 더 낮았다. 경제상태에서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일반가정 청소년이 22.0%인데 반해 북한가정 청소년 42.5%,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34.5%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선행 연구에서 건강행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가정 청소년이나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좋지 않은 건강행태의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았으며(Park & Lee, 2013), 어머니학력이 낮은 경우 비만률이 높았고(Jee & Kim, 2013), 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 흡연률이 높았다(Lee 등, 2013).

본 연구에서 북한가정 청소년의 경우 평생흡연경험률 53.1%, 현재흡연경험률 35.0%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aOR=3.59, 95% CI=1.99-6.48). Kim (2009)의 연구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현재 흡연률은 26.2%였고, Song & Song (2012)의 연구에서는 13.7%로 본 연구의 흡연이 더 높았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 북한의 매일 흡연하는 성인 남성은 52.3%를 차지하였고(WHO, 2012), Jun 등(2013)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현재 흡연률은 21.2%로 남한의 11.4%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흡연률이 높은 이유가 북한에서 온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제로 Kwak & Kim (2011)의 연구에서 부모가 흡연을 많이 할수록 청소년의 흡연률이 높았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탈북과정 중에 육체적,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게 되고, 탈북 후에도 문화적응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데(Kim, 2013), 이러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흡연의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05). 또한 흡연률이 높은 남학생의 분율이 높고, 경제상태가 낮은 취약계층이 많아 이 또한 흡연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Kwak & Kim, 2011). 최근 일주일 간접흡연 경험률은 북한가정 청소년 53.1%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36.2%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간접흡연 또한 북한가정 청소년의 경우 흡연률이 높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간접흡연 경험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모의 국적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일본의 현재 흡연률은 20.1%로 한국의 27.0%보다 낮아(WHO, 2013),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 청소년에서 간접흡연 경험률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음주 영역에서 현재 음주 경험률은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56.9%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위험 음주율은 북한가정 청소년 29.5%(aOR=4.2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95% CI=2.31-7.68),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9.2%(aOR=1.36, 95% CI=1.01-1.82)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Kim (2009)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현재 음주율은 37.7%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낮았지만, Song & Song (2012)의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평생음주경험률은 41.18%였고, Jun 등(2013)의 연구의 경우 북한이탈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은 44.0%로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가정 청소년의 경우 음주율이 높은 남학생의 분율이 높았고, 낮은 경제수준과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의 분율이 높아 음주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Cho, 2014). 또한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 등 사회부적응으로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Jun, 2008). 북한 이외의 다문화가정 부모의 국적에서 높은 분율을 보였던 국가들의 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7.6%, 일본은 17.5%로 한국의 6.0% 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WHO, 2014).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고위험 음주가 높은 것은 부모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제로 Cho (2014)의 연구에서 부모가 음주하는 경우 자녀도 음주할 가능성이 높았다.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음주율을 파악하기 위해 부모의 국적이나 음주상태에 따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약물 사용 경험률은 일반가정 청소년에서 0.3%, 북한가정 청소년의 경우 20.6%(aOR=63.01, 95% CI=22.09-179.80),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는 4.6%(aOR=12.87, 95% CI=5.20-31.82)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더 높았다. 중국의 경우 100여년 전부터 아편전쟁이나 마약범죄로 국가적 어려움을 겪을 만큼 중국의 약물 사용률은 높다(Park & Chung, 2014). 북한의 경우는 한국에 입국 전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Kim, 2009) 중국과 마찬가지로 마약 생산과 밀매가 활발하다(INSCR, 2002). 일본 역시 중국의 영향으로 대규모로 약물이 유입되어 청소년들에게도 접하기 쉬운 상황이 되었으며, 미국의 경우는 국민의 약 40%가 위법 약물을 경험하고 있다(Kim, 200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해외체류 경험이나 기간 등을 조사하지 못하여 정확한 해석은 어려우나, 북한, 중국 등 우리나라 보다 쉽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부모나 청소년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체활동, 비만 및 식습관 영역에서 주 3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은 일반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 청소년 35.1%, 북한가정 청소년 50.6%로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높았다. Jun 등(2013)의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주 3회 이상 신체활동 실천률은 78.1%로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남한 청소년에 비해 신체활동 실천률이 높았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일반가정 청소년 49.0%, 북한가정 청소년 58.8%(aOR=1.75, 95% CI=1.04-2.95)였으며,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일반가정 청소년 12.2%, 북한가정 청소년 26.3%(aOR=2.58, 95% CI=1.54-4.34)로 일반가정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높았다.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60.7%,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44.3%로 높은 분율을 보여(Kim, 2009), 이러한 이유로 제대로 된 식습관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가정의 낮은 경제수준이 결식률을 높이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해 패스트푸드의 섭취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으며(Jang 등, 2011), 부모동거여부에서 편부모가정과 그 외 가정형태가 많은 점 또한 좋지 않은 식습관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Bang 등, 2013).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정 부모나 청소년의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사용 정도, 청소년의 출생국가를 파악할 수 없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이민자의 거주기간이나 언어실력이 건강상태와 관련되어 있었다(Okafor etal, 2013). 향후 부모나 청소년의 한국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사용 정도, 출생국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시기나 제3국가의 거주기간 등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심리상태나 건강행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Kim, 2013) 향후 연구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다문화가정 부모나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도를 알 수 없는 점이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나 사회적응도에 따라 건강행태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Jun, 2008), 향후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일부 지역이나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확률 추출한 대규모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 둘째, 최근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하였고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북한가정 청소년과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분류한 점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이나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인데 반해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건강행태를 파악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평생 흡연률과 현재 흡연률, 간접흡연노출률, 현재 음주률, 위험 음주율, 약물 사용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위험 음주율, 약물 사용 경험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간접 흡연노출률과 평생 음주 경험률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률,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향후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에서 건강행태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사용정도, 한국사회 적응도를 고려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7-9차(2011-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2011년부터 2013년 조사에 참여한 학생으로, 1,954명의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160명(0.1%)이 북한가정 청소년이었고, 1,794명(0.8%)이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이었으며, 217,748명(99%)이 일반가정 학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연도와 거주지역을 매칭변수로 하여 다문화가정의 2배수만큼 일반가정 학생을 추출하여 5,8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다문화가정 분율과 부모의 국적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행태 및 건강상태 특성의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였다. 일반가정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행태 교차비는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후 조건부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평생흡연경험이 53.1%(aOR=3.02, 95% CI=1.74-5.24), 현재흡연상태가 35.0%(aOR=3.59, 95% CI=1.99-6.48)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 영역에서는 위험음주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이 29.5%(aOR=4.21, 95% CI=2.31-7.68), 북한가정 이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9.2%(aOR=1.36, 95% CI=1.01-1.82)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사용 경험은 북한가정 청소년 20.6%(aOR=63.01, 95% CI= 22.09-179.8), 그 외 다문화가정 청소년 4.6%(aOR=12.87, 95% CI= 5.2-31.82)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률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고(50.6%, aOR=1.80, 95% CI=1.14-2.84),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58.8%, aOR=1.75, 95% CI=1.04-2.95)과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26.3%, aOR=2.58, 95% CI=1.54-4.34)은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 청소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일반가정 청소년에 비해 북한가정이나 다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일부 건강행태가 좋지 못했다. 향후 이러한 차이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고문헌

Bang SY, Choi SH, Lee SH, Hwang HJ. Impact of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Variables of Par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upon Children's Problematic Behaviors : Comparison between Two-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J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 9(5): 157-179

Chua K, Baumann M, Kabuth B, Chua N. School difficulties in immigrant adolescent students and roles of socioeconomic factors, unhealthy behaviours,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J BMC Public Health 2012; 12(1): 3-11

Cho HC. A meta-analysis on the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alcohol use : From 1990 to 2012. Korean J Youth Studies 2014; 21(6): 191-221

Chung SW, Jung JC.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and Social Distanc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Adolescents. J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2012; 5(1): 51-68

Esteban-Gonzalo L, Veuga OL, Gomez-Martinez S, Regidor E, Martinez D, Marcos A, Calle ME. Adherence to dietary recommendations among Spanish and immigrant adolescents living in Spain; the AFINOS study. J Nutr Hosp. 2013; 28(6): 1926-1936

INSCR Bureau of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INSCR)," Washington, D.C.: 2002

Jang HB, Park JY, Lee HJ, Kang JH, Park KH, Song JH.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Level, Overweight, and Eating Habits with Diet Quality in Korean Sixth Grade School Children. Korean J Nutrition 2011; 44(5): 416-427

Jee YJ, Kim YH. Factors Influencing Obesity among Adolescent: Analysis of 2011 Korean Youth Risk Behavior Survey. J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3; 22(1): 39-49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un EK, Lee JH, Kim SL, Kang MJ, Kwon IS. Influencing Factors on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in a Specialization School. Korean J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13; 30(3): 13-23

Jun KS.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 Korean J Youth Counseling 2008; 16(1): 167-185

Kang IK. A Study on Alterna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Overseas Korean Youths' Identity after Unification. Study of Youth protection guidance 2010; 16: 31-56

Kim CH. Drug response and probation in Japan.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2003; 3: 293-310

Kim EJ, Kim TH. Where We Live Matters for Our Health? -Regional Patterns of Population Health and Urban Environment-. J Korean Urban Geographical Society 2014; 17(2): 149-161

Kim HK. A Study on Posttraumatic growth among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J Korean Association for Cultural Sociology 2013; 14: 225-262

Kim YK. A Survey on the Health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a Region, J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2009; 13(1): 5-18

Kwak YH, Kim TJ. A Study on Factors of family and friends Influencing on the youth smoking. J Trans Anal & Couns 2011; 1(1): 47-71

Lee BS, Kim JS, Kim KS. Factors that Affec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3; 27(1): 64-75

Lee HJ, Kim KS, Kim KH, Nam GW, Min KW et al. Relationship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and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n Adolescents and their Smoking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ehaviors. J Korea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Society 2013; 8(5): 695-702

Lee YJ. A Study on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Psychosocial Adjustment of a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Korean J Family Welfare 2009; 14(2): 103-119

Lim EM, Jung SJ, Jin YZ. Multi-cultural Studies and Multi-cultural Counseling Studies in South Korea. J Counseling 2009; 10(3): 1291-1304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3 & 2014). Annual report on the Multicultural family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Survey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2014

Ministry of Unification. 2013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0

Okafor MT, Carter-Pokras OD, Picot SJ, Zhan M. The relationship of language acculturation (English proficiency) to current self-rated health among African immigrant adults. J Immigr Minor Health 2013; 15(3): 499-509

Park CS, Chung YI. Modern Situation of Drug Crime and Criminal Policy in China.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2014; 49(1): 325-341

Park NH.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5; 22(4): 123-136

Park HB. Nationalism and Multiculturalism on Unification Education. J Ethics Education Studies 2013; 31: 213-235

Park HS, Yu JH, Park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2013; 8(5): 771-777

Park SJ. A Study on the Trend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Foreign Country, J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2011; 4(1): 1-24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Park SY, Lee HJ. Determinants of Problem-Drinking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Health and Delinquent Behavior Factors. J Korea Society for Wellness 2013; 8(1): 33-44

Shin HS. Equity in Health: Regional Difference of Health Service Utiliz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 176: 22-31

Singh GK, Yu SM, Kogan MD. Health, chronic conditions, and behavioral risk disparities among U.S. immigrant children and adolescents. Public Health Rep 2013; 128(6): 463-79

Song HJ, Song MS. Alcohol Drinking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J Korean Alcohol Science 2012; 13(2): 89-9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4

Yoon SO, Park MH, Kwon JS. Effects of Communication Between a Parent-Child and Social Support on Problematic Behaviors of Adolescents. J Pubic Welfare Admimistration 2010; 20(1): 25-47

Collection @ chosun